독서 수업 구성안 ①　청명고등학교 이민동 선생님
응곡중학교 김미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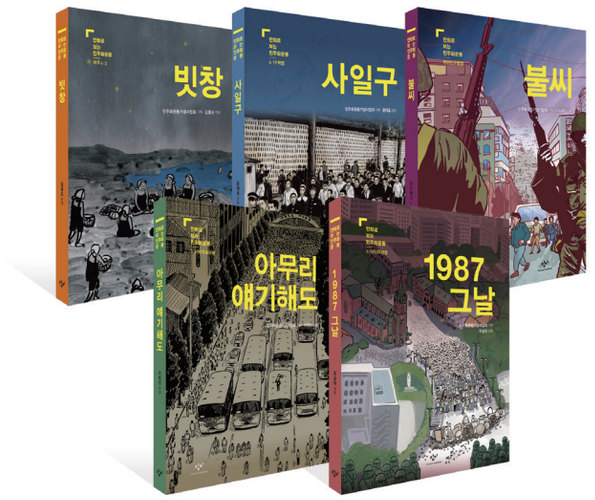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김홍모·윤태호·다드래기·마영신·유승하 만화

빗창 | 제주4·3
사일구 | 4·19혁명
불씨 | 부마민주항쟁
아무리 얘기해도 | 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 | 6·10민주항쟁

자랑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가장 가슴 뛰는 장면을 만화로 만나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김홍모『빗창』 제주4·3
윤태호『사일구』 4·19혁명
다드래기『불씨』 부마민주항쟁
마영신『아무리 얘기해도』 5·18민주화운동
유승하『1987 그날』 6·10민주항쟁

책 소개

일제강점기 말, 제주도의 해녀 련화는 낮에는 '물질'을 하며 가족의 생계에 힘을 보태고 밤에는 야학에 참여하며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한다. 련화와 그녀의 친구,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항일해녀항쟁을 주도하며 해녀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도 한다. 그러다 마침내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온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세상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에 붙어먹던 친일파들은 좌익 척결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변신했고, 미군정은 이들을 비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육지에서 토벌대가 파견되고 얼마 뒤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된다. 련화와 동료들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염원했던 '진정한 해방'을 만들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다.

『빗창』은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제주4·3을 여성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4·3은 이미 70여 년 전에 종식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 그 성격과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포인트

1. 한국의 역사 속에서 제주도의 비극적 위치 확인하기

많은 학생들에게 제주도는 그저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도는 차별과 착취의 땅이었고 제주도민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제주4·3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주의 역사가 지닌 비극적 위치부터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들의 저항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을 중심으로 내세운 이유를 이해하기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해녀라고 하는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 말미의 실린 작품 해설에 따르면 해녀들이 제주4·3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작가가 왜 유명한 남성 활동가(이덕구, 김달삼 등)가 아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제주4·3을 다루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항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부당하게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존재를 또렷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엇이 학살을 합리화시켰는지 생각해보기

제주4·3 당시 벌어진 토벌대의 학살 사례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그리도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토벌대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벌어지게 된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고 그들이 작동시켰을 법한 합리화 기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평범한' 사람들도 극단적 상황과 증오심에 매몰될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살아남은 민주의 삶을 상상해보기

남아 있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증언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학살의 주범들이 시퍼렇게 살아 권력과 결탁해 호의호식하는 상황에서, '너 빨갱이지?'라는 말이 호환마마보다 두렵던 시대에서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라는 것은 오히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 못할 상처와 울분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다 마침내 '제주4·3은 국가 폭력이었다'는 대통령의 사과를 듣게 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련화의 딸인 민주는 끔찍한 학살에서 결국 살아남았다. 학생들은 살아남은 민주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보면서 제주4·3 생존자들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 책에 드러난 제주4·3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기

이 책은 제주4·3을 '무고한 민간인이 겪은 끔찍한 국가 폭력'이 아닌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다. 하지만 입산한 제주도민들 상당수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또 하나의 논쟁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백비 비문 작성하기 활동을 통해 제주4·3을 어떤 성격으로 바라볼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시별 계획

1차시

1. 여는 이야기

• 제주4·3을 겪은 주민의 증언

> "해방이 되자 그 환희는 대단했어. 일제 때 앞장섰던 사람들은 쏙 들어가고, 대신 청년들이 나섰지. 그땐 먹을 것이 없어도 신났어. 그때 학교 운동장에서 기마 경주를 하던 모습은 정말 대단했지. 자기 마을 청년들이 기마 경주에서 이기면 그게 마을 자랑이었어. 아무튼 우리 마을 청년들은 싱싱했어. 그런데 그 싱싱하고 똑똑했던 그 청년들은… 4·3사건 때 거의 다 죽었어…"
>
> 출처: 강요배『동백꽃 지다』

2. 수업 활동

• 『빗창』에서 제주4·3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을 찾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1. 『빗창』을 읽고 제주4·3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을 찾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아래 표를 작성해봅시다. (교과서, 인터넷 자료 참고)

사건	발생 일시	설명

2차시

1. 여는 이야기

• 제주도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또 다른 사건인 목호의 난

> 1374년 8월, 제주 해안가에 314척의 고려 전함이 나타났다. 곧이어 명장 최영이 이끄는 2만 5,600명의 고려군이 제주 땅에 상륙했다. 제주민 숫자와 맞먹는 수의 대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다. 작전은 성공했고 수천의 탐라 몽골군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제주민 또한 이 토벌전에서 희생당했다.
>
> 출처: 정용연『목호의 난, 1374 제주』

2. 수업 활동

① 『빗창』에서 제주4·3 이전 제주도의 애환을 알 수 있는 내용 찾기

② 한국의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조사하기

③ 제주도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2-1. 이 책에서 제주4·3이 벌어지기 이전 제주도민들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장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2. 다음 사건들을 간단하게 조사하여 각 사건에서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발표해봅시다.

사건	발생 시기	사건의 내용 및 제주도민들의 피해	참고할 만한 자료
목호의 난			정용연『목호의 난, 1374 제주』, 이영권『제주역사기행』, 강요배『동백꽃 지다』 및 인터넷 자료
이재수의 난			
결7호 작전			

2-3. 다음을 읽고 조선 사회에서 제주도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의 풍토와 인물은 아직 혼돈 상태가 깨쳐지지 않았으니, 그 우둔하고 무지함이 저 일본 북해도의 야만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출처: 추사 김정희의 서신

○이 섬의 풍토는 육지와는 다른 특수한 지역이라 모든 사상(事象)이 하나하나 달라 괴상하고 놀랍기도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별로 없다.
이 지방 사람들의 말투는 높고 가늘어 흡사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며 또 사투리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많았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생원 김양필을 제외하고는 글을 아는 이가 거의 없고 인심은 경솔하고 거칠었다.
이들은 항상 재리만을 탐하여 털끝만 한 일에도 뇌물을 주고받으며 염치나 도리 같은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출처: 김정『제주풍토록』

○제주 목사가 근무하던 관청은 아예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의 망경루가 있을 정도였다. 그게 또 관청 건물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컸다. 지방관의 심리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천에 있는 연북정도 마찬가지다. '북쪽을 사모하는 정자.' 여기서 사모의 대상인 북쪽은 곧 서울에 있는 임금을 뜻한다.

출처: 이영권『제주역사기행』

○절도 유배의 경우 관이 지키는 곳이 아니면 유배를 보내서는 안 되며, 흑산도 등 뱃길이 험한 곳은 특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 **제주 3읍**에도 죄명이 특히 중한 자 이외에는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

출처:『대전통편』

3차시

1. 여는 이야기

- 항일해녀항쟁을 주도했던 해녀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이 제주 출신 인물 중에서는 최초로 '이달의 독립운동가'(2022년 1월)에 선정됨

2. 수업 활동

① 『빗창』에서 항일해녀항쟁 당시 해녀들의 요구사항 찾아보기
② 『빗창』에서 해녀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보기
③ 오늘날의 여성을 한 명 선정하여 『빗창』 속 주인공과의 가상 대화록 만들어보기

3-1. 이 책에서 항일해녀항쟁 당시 해녀들의 요구사항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3-2. 이 책의 후반부에 잠깐 등장하는 이덕구는 실존 인물로 제주4·3의 주역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해녀(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덕구와 같은 남성들을 주변적인 인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3. 오늘날 여러분에게 귀감을 주는 여성 한 명을 선정하여 이 책 속 주인공들과의 가상 대화록을 만들어봅시다.

*인물 선정은 자유롭게 하되 두 여성이 서로에 대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지점, 혹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대화를 구성.

4차시

1. 여는 이야기

• 토벌대의 잔혹 행위를 다룬 기사

> 포로들이 수송되어 온다. 자동차에 가득 실려가는 젊은 사람들, 도보로 철덕거리며 끌려오는 노소에서 부녀까지 기어 있는 일련, 비는 아직도 개지 않는다. 구부린 채 말없이 이끌려 가는 그들의 안색은 그들의 의복과 같은 색깔이다. 감히 그들을 어느 모로 보아야 폭도라고 부를 수 있을는지, 육십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까지 무엇 때문에 폭도로 규정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는가…
>
> 출처: 『신천지(新天地)』 1948년 7월호

2. 수업 활동

① 『빗창』과 참고 자료에서 서북청년단과 토벌대의 잔혹 행위 찾기

② 서북청년단과 토벌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 비판하기

[4-1, 4-2] 다음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가.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줄여서 '서청')은 이름 그대로 서북쪽, 즉 지금의 북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북한의 사회 개혁 당시 강제로 정치적 기득권과 재산을 빼앗겨서 남한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좌익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1947년 경찰을 따라 제주로 들어온 서청은 이듬해인 1948년 제주4·3 이전까지 제주 전역에서 2,500여 명을 검거하며 온갖 폭력과 살상 행위를 일삼았다.

나. 제주4·3 당시 학살 사례들

○토벌대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마주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도록 했다. 머뭇거리거나 살살 때리면 곧 무자비한 구타가 가해졌다. 심지어는 총살에 앞서 총살자 가족들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 부모 형제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다. 표선면 가시리 안공림 씨는 여덟 살 때 총살장에서 박수를 쳤던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너무도 끔찍해 눈을 뜰 수도 없었지만 벌벌 떨며 박수를 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름 빼앗기지 마라'는 유행어도 나돌았다. 토벌대의 고문이 워낙 가혹해 일단 취조를 받으면 허위로라도 자백해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원면 신례리 양경수 씨(78)는 당시 '이름 빼앗기지 마라'는 유행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연히 토벌대에게 끌려가는 사람의 앞에 가거나 근처에 있다가 그의 기억 속에 자신의 존재를 남기지 말라는 뜻이다. '고문을 받으면 아무 이름이나 튀어나오는 법'이라고 했다.

○1949년 1월 17일에 벌어진 북촌리 학살사건은 제2연대 3대대 중대 일부 병력이 북촌리를 통과하다가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230~300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300여 채의 가옥을 잿더미로 만든 사건이다.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주민들이 동요하자 토벌대는 위협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위협사격으로 30대 임산부와 두 살짜리 젖먹이를 안은 40대 여인이 쓰러졌다. 많은 마을 주민들은 젖먹이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진 어머니의 가슴에 파고들어 젖을 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전한다.

출처: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참고

다. 『빗창』 작품 해설 중

진상조사 보고서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했다. (…) 신고된 인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약 12퍼센트, 여성이 전체 희생자의 약 21퍼센트를 차지한다.

4-1. 서북청년단과 토벌대가 제주도민들에게 저질렀던 행위들을 이 책에서 찾아서 적어봅시다.

4-2. 서북청년단과 토벌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고 가정하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해봅시다.

"우리보고 학살자라고? 1948년 4월 3일에 먼저 제주경찰서를 습격한 건 좌익 무장대였다고. 좌익 놈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놈들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학살은 우리만 한 줄 알아? 좌익 놈들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5차시

1. 여는 이야기

• 제주4·3에 대해 사과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온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

출처: 2006년 4월 3일 제주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

2. 수업 활동

① 제주4·3 희생자 가족의 추도사를 통해 생존자의 아픔을 이해하기

② 자신이 생각하는 제주4·3의 의미를 담아 백비의 비문을 작성해보기

③『빗창』에서 살아남은 민주의 삶을 상상해보기

5-1. 할머니가 생선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제주4·3 희생자 가족의 손녀 정향신의 추도사

5-2. 제주4·3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에는 백비, 즉 비문이 없는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라면 비문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주4·3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백비의 비문을 채워봅시다.

1) 작가의 관점에서 쓴 백비 비문:

2) 나의 관점에서 쓴 백비 비문:

5-3.『빗창』의 마지막 장면에서 련화의 딸 민주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작가는 왜 민주를 살려냈을까요? 살아남은 민주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책 소개

현용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둘째 사위인 석호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현용에게는 전라도 출신인 데다 평소 집회와 시위에 자주 참가하는 사위 석호를 특별히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다 석호는 현용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현용의 동생 현석에게서 장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 듣게 된다.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4·19혁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4·19혁명은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런데 『사일구』는 4·19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망설이며 머뭇거리다 결국 외면해버린 이들의 눈으로 4·19혁명을 그리는 책이다. 작가는 왜 시대적 사명을 거부한 '비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려 4·19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한 걸까? 그리고 현용은 왜 기억력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석호의 이름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수업 포인트

1. 4·19혁명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사일구』의 주인공은 4·19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했던 사람이다. 이들의 삶을, 이들이 저항을 거부한 이유를 왜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이들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그저 핑계가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족쇄였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이들의 고뇌를 이해하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삶'에 대한 합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용에게 사위 석호는 어떤 의미였는지, 현용은 왜 마침내 촛불을 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2. 4·19혁명과 청소년, 그리고 나

한때 4·19혁명은 '4·19 학생 의거'로 불릴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강조되었고 이때 학생은 대학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중·고등학생, 심지어 국민학생(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역시 마산상고 1학년생이었다. 따라서 당시 청소년들도 4·19혁명의 주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이 사건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4·19혁명을 연관 지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시

1. 여는 이야기

• 3·15 부정 선거를 묘사하는 영화의 한 장면(영화「효자동 이발사」 등 참고)

2. 수업 활동

• 『사일구』에서 주인공 현석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4·19혁명 관련 사건들을 정리해 보기

1. 『사일구』를 읽고 주인공 현용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4·19혁명 관련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아래 표를 작성해봅시다.

사건	발생 일시	설명

2차시

1. 여는 이야기

• 4·19혁명을 소재로 한 시

진달래—다시 4·19날에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맺등마다,

그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

2. 수업 활동

• 『사일구』 속 여러 등장인물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4·19혁명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2-1. 이 책에서 현용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을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2-2. 석민의 아버지와 현용의 대화(111~115쪽)에 현석도 참석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2-3. 시(詩) 「진달래」 속 '욕처럼 남은 목숨'이라는 표현에 대해 현용은 공감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2-4. 현용에게 사위 석호의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3차시

1. 여는 이야기

• 청소년이 참여한 집회(세월호, 촛불집회, 기후위기 집회 등)

2. 수업 활동

① 『사일구』 속 여러 인물의 삶의 방식 중 자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게 될지 생각해보기

② '훗날은 훗날의 일만으로도 벅차다'는 말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③ 4·19혁명에 참여했던 당시 청소년들의 생각을 추측해보기

④ 청소년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가상 시위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

3-1. 앞으로 여러분은 현용, 석민, 현석 중 어떤 인물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게 될까요?

3-2. 다음과 같은 현용의 독백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인용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해주고 싶은가요?

"훗날은 훗날대로의 일이 있는 법이어서 과거의 기약을 챙길 수 없다. 훗날은 훗날의 일만으로도 벅차리라."

3-3.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받은 실제 인터뷰 질문들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4·19혁명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던졌다면 이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지 상상해봅시다.

기자: 시위 또는 시국선언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

기자: 배후세력이 있느냐는 반응에는 어떤 답을 주고 싶은가.
→

기자: '상투적인' 질문이지만(웃음)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어째서 여기에 나왔느냐'라는 어른들의 반응도 꽤나 많다. 이런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시위나 시국선언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가.
→

3-4. 4·19혁명은 청소년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청소년인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펼친다고 가정해보고 가상 시위 프로그램을 기획해봅시다.

	내용
시위 주제	
시위의 목적	
시위 장소 및 주 설득 대상	
시위 방식 및 프로그램	○ ○ ○ ○

책 소개

마산에 사는 진숙이와 부산에 사는 은미가 편지로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는 당시 부마민주항쟁 현장에서 그들이 느꼈을 참담함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피로 써 내려간 역사이다. 특히, 역사의 불씨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무게가 남다르다. 그 시대를 산 누군가는 울분을 토하며 일어섰고, 또 누군가는 그 뒤를 따랐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뒤에서 도왔다. 그들이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우리가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목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자들의 행진이 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이들은 대단한 사상가도 대단한 정치가도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 책을 읽으며 때론 눈물을 흘리고 때론 분노하며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힘, 가만히 있지 않을 힘을 다시 채울 수 있다.

수업 포인트

1. 소중한 민주주의의 도화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그다음 꿈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 일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의 평범한 이웃에게 행한 국가 폭력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대단한 정치가나 사상가가 아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들의 삶이 국가 폭력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일기 및 대화문을 써 보는 활동을 마련했다. 이 활동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를 올곧게 응시하며 불의에 항거한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억은 힘이 세다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내가 그 당시를 산 역사학자라고 가정하고 역사 기록물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에게 편지 쓰기, 기념사 쓰기, 나의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등의 다양한 기억 활동 경험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힘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다.

차시별 계획

1차시

1. 여는 이야기

- 10·26사태 :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

2. 수업 활동

① 부마민주항쟁의 원인이 된 사건 찾아보기

② 헌법 제1조를 읽고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찾아보기

1-1.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찾아 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 정리해 보자.

찾은 사건	관련된 구체적 정보

1-2.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시위대가 외쳤을 구호를 상상해 적어 보자.

1-3. 이 책을 읽고,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적어 보자.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 이유
①		
②		
③		
④		

1-4. 27쪽 "이제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2차시

1. 여는 이야기

• SBS「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101호 작전, 흰 장갑의 습격

2. 수업 활동

①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부마민주항쟁 기억하기
② 등장인물의 행동의 이유 이해하기
③ 인물 간의 대화로 부마민주항쟁 이해하기

2-1. 이 책을 읽고, 다음 날짜에 이 책의 인물들에게 있었던 일을 적어 보자.
① 1979. 10. 16. ② 1979. 10. 18. ③ 1979. 10. 26.

1972. 10. 17 유신헌법 선포
1978. 총선에서 야당 승리 / 제2차 석유 파동
1979. 8. 9. YH 무역 사건
1979. 10. 4.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1979. 10. 16. 부산대학생 시위
1979. 10. 17. 부산 시민들 시위 확대
1979. 10. 18. 부산에 계엄령 선포 / 경남대학생 시위 시작 / 마산 시민들 시위 참여
1979. 10. 20. 마산에 위수령 선포 / 이후 시위 지속
1979. 10. 26. 10·26사태 / 유신 독재 끝

①1979. 10. 16.

②1979. 10. 18.

③1979. 10. 26.

2-2.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입장이 되어 다음 중 하루로 날짜를 정해 일기를 써 보자.

①1979. 10. 16. ②1979. 10. 18. ③1979. 10. 26.

년 월 일

2-3. 이 책의 등장인물 김주남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지 써 보자.

2-4. 이 책의 209쪽에서 은미와 진숙이가 만난다. 이 둘이 자신이 기억하는 '부마항쟁'에 대해 대화한다고 가정하고 대화문을 써 보자.

은미

진숙

3차시

1. 여는 이야기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많이 있소
당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글을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 할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침묵과 위선, 비겁과 굴종은
누구의 할 일이란 말인가
- 신용길, 「브레히트를 생각하며」

2. 수업 활동

① 부마민주항쟁 역사 기록을 카드뉴스로 만들기

② 부마민주항쟁의 의미 이해하기

3-1. 부마민주항쟁 당시 언론 통제가 심해 부산과 마산의 시위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내가 역사학자라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남기고 싶은지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

1) 다음 단어를 검색해 보고 정보를 찾아 정리해 보자.
박정희, 마산수출자유지역, 부산의 대학생, 마산의 대학생, 10월 16일, 10월 18일, 10월 26일, 독재와 민주주의

2) 찾은 자료를 이미지와 결합하여 카드뉴스 형식의 역사 기록물을 남겨 보자.

3-2. 다음은 부마민주항쟁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본 부마민주항쟁이다. 글을 참고해 한 줄 기록을 적어 보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진정한 시민항쟁" —대학생
"부마민주항쟁의 의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생
"유신체제를 종식시킨 시민들의 저항" —교수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잡은 역사적 전환점" —노점상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고등학생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고등학생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 —경찰 공무원
"시민의식의 성장은 부마민주항쟁부터" —대학생
"강고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항쟁" —대학생
"10·26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 —전투경찰

- 부마민주항쟁 교육자료『우리들의 부마 197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4차시

1. 여는 이야기

•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증언 "시월의 '숨겨진 영웅들'"

2. 수업 활동

① 인물에게 편지 쓰기
②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② 기념사 쓰기

4-1.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그에게 편지글을 써 보자.

정인기(부산, 1961년생) 중국집 배달원
황종철(부산, 1943년생) 봉제 공장하청업
곽원길(마산, 1956년생) 창원공단 노동자
김주남(마산, 1956년생) 요리사
박성옥(마산, 1959) 경남대 학생
양홍열(부산, 1962년생) 건설 노동자
김대양(부산, 1959년생)항운 노동자
유진숙(마산, 1961년생) 생산직 노동자

4-1. 작가는 "앞으로도 할 게 많다. 그쟈?"라는 말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한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지 써 보자.

4-3.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의 일부이다. 이 글을 참고해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갖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기념사를 적어 보자.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2019) 대통령 기념사 中

책 소개

반장은 포장마차에서 닭꼬치를 파는 할아버지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광주로 잠입한 간첩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반장은 친구들과 포장마차 할아버지에게 들은 '북한군 광수' 사진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교사에게 '일베' 하느냐는 면박을 당한다. 교사는 5·18민주화운동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더럽히는 시도가 있다고 개탄한다. 하지만 반장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즈음 누가 퍼뜨린 것인지 반장이 일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아무리 애기해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소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보통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이 희생자 대 가해자의 구도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비해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태에 분노하는 교사'와 '조금씩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학생'의 갈등이 중요한 축이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교사는 '선', 학생은 '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작가는 왜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고자 한 걸까? 이 물음에 독자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답을 해가며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수업 포인트

1. 사람은 왜 부당한 명령에 순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기록들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계엄군은 어떻게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상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혹시 그들 중에 '이건 아니야', '이들은 폭도가 아니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그들은 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요구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것이다.

2. 무엇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청소년을 만드는지 생각해보기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각종 '밈'이 홀러넘치고 '5·18민주화운동 수업을 하다가 일베 하는 학생들이 트집을 잡아서 곤혹스러웠다'는 경험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청년)층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작가는 하나의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의심과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주입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정서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설득할 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성찰 과정이 자칫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두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위선자이거나 '꼰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수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3.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하면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 것인지 생각해보기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5·18민주화운동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매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이 거행되며, 수많은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익숙해지고 당연해질 때 그것에 대한 감각은 둔해지기 마련이다. 5·18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이 민주화운동이 그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사건으로 머무른다면 언젠가는 그 의미마저 잊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을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차시

1. 여는 이야기

•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영화 「화려한 휴가」, 웹툰 및 영화 「26년」, 영화 「택시운전사」 등 참고)

2. 수업 활동

① 『아무리 얘기해도』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배경 찾아보기

② 『아무리 얘기해도』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사례 찾아보기

1-1.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찾아서 다음 표를 정리해봅시다.

사건	발생 일시	설명

1-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 사례를 이 책에서 찾아 있는 대로 적어봅시다.

2차시

1. 여는 이야기

• 한나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2. 수업 활동

① 왜 사람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지 생각해보기

② 부당한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기

2-1. 모든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을 이 책에서 찾아봅시다.

2-2.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이 폭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지 않은 이유, 혹은 의심을 했음에도 잔혹한 진압을 멈추거나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2-3.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요구받는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사회·제도적 측면:

2) 개인적 측면:

3차시

1. 여는 이야기

•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사망 뉴스

2. 수업 활동

① 5·18민주화운동 생존자의 삶을 살펴보기

②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특별 사면이 적절했는지 생각해보기

3-1. 5·18민주화운동 생존자의 삶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이 책과 인터넷 등에서 찾아봅시다.

3-2. 이 책 223~227쪽에서 '사진 찍는 모습'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3. 전두환, 노태우 씨는 수감된 지 1년 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했는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1997년 12월 21일,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 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 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 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당시 사면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선 후 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1997년 12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12월 23일, 『동아일보』에서 정동영 대변인은 전두환, 노태우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제로 "국민이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전·노 사면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출처: 한국 위키백과

4차시

1. 여는 이야기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사례

2. 수업 활동

①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이유들에 대해 성찰해보기

② 이미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5·18민주화운동을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기

4-1. 이 책에서 반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4-2.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세월호 참사에서 둘째 딸을 잃은 김○○ 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

명을 요구하며 40일 동안 단식을 펼쳤다. 그런데 김 씨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이었으며, 10년 전에 이혼을 해서 두 딸을 키운 것은 전 부인과 장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그가 순수한 의도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1) 밑줄 친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1)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에 나타난 교사의 태도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지적해봅시다.

4-3. 반장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 건네기 방식을 고민하면서 가상 편지를 써봅시다.

4-4.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면서 매년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수많은 작품의 소재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을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 소개

『1987 그날』은 모자이크 같은 책이다. 이 책은 혜승, 진주, 나리, 그리고 상계동 철거민들처럼 '이름 없는 시민 1, 2, 3'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제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혜승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언니의 자살을 겪으면서 민주화운동에 애써 거리를 두려 하고, 진주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약 없는 싸움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 밝고 명랑한 수험생인 나리는 특별히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즉 『1987 그날』의 주인공들은 '지금 전두환 정권에 맞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은 정당하며,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 1987년 6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6·10민주항쟁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야만의 종식을 앞당긴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선거를 떠올린다. 지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도 하는 선거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점에서 분명 선거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권이 곧 민주주의이며, 선거권 쟁취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87 그날』을 통해 그 뜨거웠던 6월을 되짚어보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민주주의는 '1987년 그날의 함성'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수업 포인트

1. 스포츠와 올림픽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온 사례들을 이해하기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와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 그리고 페어플레이와 인간 승리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특히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스포츠와 올림픽이 항상 순수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지나친 상업성과 환경 파괴로 비판을 받고 있다. 『1987 그날』에서 다루어진 상계동 철거 문제와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로 인한 가리왕산 훼손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책의 주인공 중 일부는 상계동 철거민들이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과 투쟁을 조명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폭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생, 수험생, 분식집 주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다. 다들 자기 나름의 고민을 안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인 고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실천에 나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고난 영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선거는 곧 민주주의라는 통념을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성찰하기

6·10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단순히 직선제를 확보했느냐, 군부 독재 세력이 완전히 퇴출되었느냐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인 됨'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면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시별 계획

1차시

1. 여는 이야기

• 6·10민주항쟁을 다룬 영화(영화 「1987」 등 참고)

2. 수업 활동

• 『1987 그날』에서 6·10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정리하기

1. 이 책에서 6·10민주항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 다음 표를 작성해봅시다.

사건	발생 일시	설명

2차시

1. 여는 이야기

•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전두환의 시구

2. 수업 활동

① 올림픽과 스포츠가 권력 유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하기

②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상계동 철거민의 눈을 통해 2018년 평창 올림픽 가리왕산 훼손 논란 이해하기

2-1. 전두환 정권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던 이유를 다음 자료의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봅시다.

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축구를 활용해 노동자들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무솔리니 정권은 축구 경기를 할 때 반드시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도록 했고, 국제 경기에서 승리하면 파시즘 체제의 승리인 것처럼 선전했다.

나.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는 1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경기장을 지어 나치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했다. 또한 유태인 학살과 인종 차별에 앞장섰던 히틀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유색 인종 차별 완화 정책을 펼치며 이미지 개선에 신경 썼다.

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는 스페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를 자신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프랑코를 싫어하는 카탈루냐 지방인들은 레알 마드리드를 향해 야유를 퍼

붓는다. 바르셀로나가 이기기라도 하면 그들은 프랑코를 물리친 것처럼 기뻐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재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해소하였지만, 그로 인해 독재에 저항하는 힘도 약화되었다.

2-2. 여러분이 이 책에 등장하는 나리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가리왕산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한계령풀, 금강제비꽃, 도깨비부채 등 희귀자생식물 복원, 천연 활엽수와 산나물, 산약초, 야생화가 만발하는 수백 년 된 원시림으로, 2008년 '희귀 식물 자생지'임을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되어 스키장이 건설되었고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났다. 단 며칠간의 올림픽을 위해 보호림을 훼손하기로 한 만큼 전제 조건은 '사후 전면 복원'이었고, 올림픽이 끝나고 꾸려진 생태복원추진단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리왕산을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고 곤돌라를 비롯한 인공 구조물을 철거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갑자기 '곤돌라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올림픽이 끝난 후 가리왕산 보호림을 복원시킨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가버렸다.

출처: 경향신문 기사 요약 정리

3차시

1. 여는 이야기

- 『1987 그날』에 나온 혜진의 유서(145쪽)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 지음이다.

2. 수업 활동

-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가졌던 고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이해하기

3-1. 이 책 70~74쪽에서 진주가 박종철과 대화를 나누다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3-2. 이 책에서 혜승과 혜승의 어머니가 혜진의 삶(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3. 여러분이 이 시기를 살아갔던 대학생이라 가정하고 그들이 가졌을 법한 현실적인 고민을 짐작하여 어느 하루의 가상 일기를 써봅시다.

4차시

1. 여는 이야기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치안본부장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발언

2. 수업 활동

-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살펴보기

4-1. 이 책 50~55쪽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봅시다.

4-2. 다음은 이 책에서 진주가 읽은 박종철 열사 추모시입니다. 물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 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 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너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 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네게 약속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1) 박종철을 비롯해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희생을 '거짓'으로 만드는 정권의 행위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 이 시에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진주를 비롯한 이들은 무엇을 했나요?

4-3. 이 책에서 나리가 그랬던 것처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당시 많은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고 이들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차시

1. 여는 이야기

- 한국의 촛불집회

2. 수업 활동

①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평범한 '의인'들을 발견하기

② '전두환 정권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③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해보기

5-1. 다음을 읽고 이 책에 나타난 한국의 '로렌초'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어떤 실천을 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에겐 로렌초가 있었다. 20세기 최고의 증언 문학으로 손꼽히는 저작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레비는 참혹한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을 버티게 한 생존의 힘을 로렌초에게서 찾았다. 강제 노동에 내몰려 공포를 먹고 절망을 입고 사는 레비에게 이탈리아 민간인 노동자 로렌초는 여섯 달 동안 매일 빵 한 조각을 가져다주었고 옷과 엽서를 전달해주었다. 레비에게 그것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알리는 빛이었다. 레비는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수용소 밖에는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로렌초 덕에 레비는 나치의 광포한 위계질서와 그것이 만들어낸 수인들 사이의 인간성 파괴와 내적 황폐 속에서도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 의인들은 한결같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한다. 실제 그들은 저항 투사와 달리 조직화된 정치 훈련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특정한 신념을 결의하지도 않았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누군가와 불화를 겪거나 삶의 굴절과 곡절을 겪었을 것이다. 구조자들을 ‘흠 없는 영웅’으로 전제하고 보면 더 이상의 질문도 불가능하고 답은 동어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행동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영웅이 아니기에 ‘나라면 저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고 물러서기 바쁘다.

출처: 이동기 「‘로렌초’들을 기억하라」, 『한겨레21』

5-2.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전두환 정권 때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개막되면서 한국 스포츠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도 없어졌고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율화도 이루어졌죠. 게다가 경제도 크게 발전했고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볼 때 전두환 정권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5-3. 『1987 그날』 마지막 장면에서 혜승은 6·10민주항쟁을 ‘그토록 지난하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연결 지어 이야기해봅시다.

독서 수업 구성안 ②　응곡중학교 김미영 선생님

창비 인권만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십시일反 | 만화가들이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사이시옷 | 차별을 넘어 너와 나를 잇는 만화 공감
어깨동무 | 만화가 10인의 마침표 없는 인권 여행

30만 독자를 웃기고 울린
한국 대표 만화가들이 그려낸 차별 없는 세상

창비 인권만화

『십시일反』 손문상 홍승우 홍윤표 이희재 조남준 이우일 유승하 장경섭 최호철
『사이시옷』 손문상 이애림 장차현실 홍윤표 오영진 정훈이 유승하 최규석
『어깨동무』 정훈이 최규석 손문상 김수박 조주희 박철권 김성희 윤필 굽시니스트 유승하

'인권 감수성'은 어떻게 키워질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감수성은 키워지기 힘들다. 다른 사람이 당한 부당함에 깊이 공감하고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사고할 수 있을 때 인권 감수성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만화가들이 그려낸 세상의 다양한 차별의 모습은 너무도 꼼꼼하고 사실적인 이 시대의 민낯이다. 인물들의 표정, 행동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를 아프게 깨운다. 이 책은 이 땅에 버젓이 뿌리 내린 차별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세상과 타협하며 점점 작아져 가는 양심을 뒤흔들어 다시 올곧게 세상을 응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모든 변화의 발판은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초판 여는 글」에는 "『십시일反』은 여러명이 모여 만든 책 한권으로 차별에 맞서겠다는 의도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화가들이 만든 인권의 발판에 함께 올곧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리라 믿는다.

수업 포인트

1. 불편함을 직면하고 세상과 연결하기

만화가들이 눈 맑게 잡아낸 세상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에 표현된 표정, 행동, 대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과정이기에 다소 진중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 계층, 빈부격차, 노동, 교육, 국제 분쟁, 남녀 차별, 사회적 편견, 외모, 학벌,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 신분 차별 등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직면하는 것이 먼저다. 작가의 의도와 제목의 의미를 찬찬히 헤아려 보고, 세상일과 연결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비판 의식을 키울 수 있다.

2. 이치를 따지는 힘으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이치를 따지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책에 등장한 다양한 차별 사례를 정리하고 온당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보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연결해 설명해 보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스스로 성찰해 보며 인권 의식을 내면화하는 기회로 삼는다.

차시별 계획

1-4차시

1. 만화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손문상 작가와 홍승우 작가의 작품을 읽고 주제와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목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유전		
지하철		
입영 전야		
평등의 세상		
최종합격		
차별의 논리		

비정규직		
경쟁		
유토피아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		
하루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애한테 무슨 일을 시켜?!		
무지개 깃발		
좀 일어나!		
Power of love		

2. 손문상 작가와 홍승우 작가의 만화 중 세상일과 연결해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작품 세 편을 정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제목	떠오른 세상일은?	떠오른 세상일에 대한 나의 생각

3. 「첫발자국」과 「누렁이」를 읽고 주제와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목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발자국		
누렁이 1		
누렁이 2		

4. 「첫발자국」과 「누렁이」를 읽고 세상일과 연결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제목	떠오른 세상일은?	떠오른 세상일에 대한 나의 생각
첫발자국		
누렁이		

5. 이우일 작가와 홍윤표 작가의 작품을 읽고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목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빠와 나 1	
아빠와 나 2	
아빠와 나 3	
아빠와 나 4	
아빠와 나 5	
아빠와 나 6	
아빠와 나 7	
아빠와 나 8	
미운 아기오리	
산타 할아버지와의 대화	
석봉이네 집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골쥐 서울쥐	
로빈슨 크루소	
성냥팔이 소녀 in Korea	

6. 이우일 작가와 홍윤표 작가의 작품 중 세상일과 연결해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작품 세 편을 정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제목	떠오른 세상일은?	떠오른 세상일에 대한 나의 생각

7. 「새봄 나비」, 「커밍아웃 블루스」, 「코리아판타지」를 읽고 주제와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목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봄 나비		
커밍아웃 블루스		
코리아판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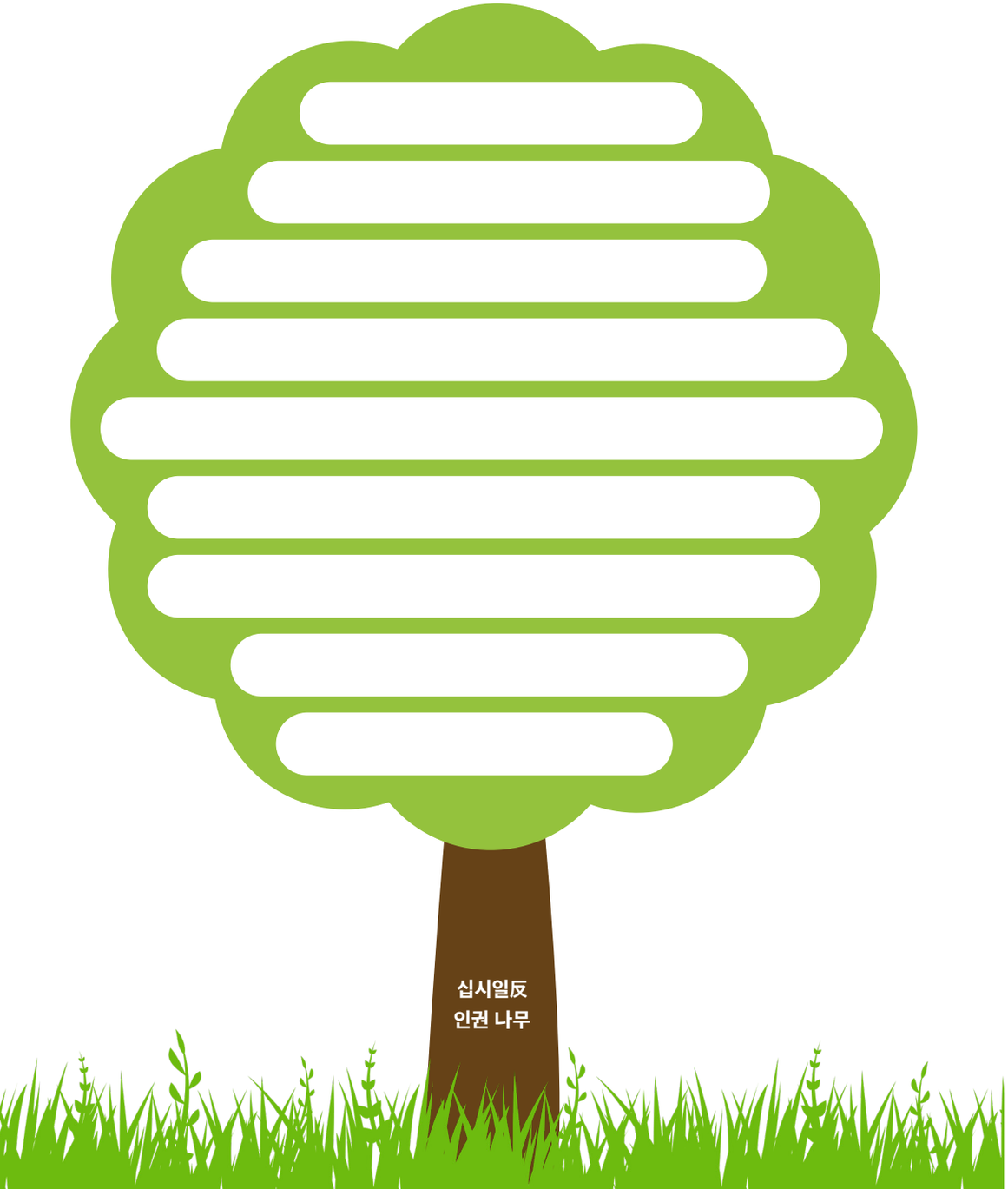
8. 「새봄 나비」, 「커밍아웃 블루스」, 「코리아판타지」를 읽고 세상일과 연결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제목	떠오른 세상일은?	떠오른 세상일에 대한 나의 생각
새봄 나비		
커밍아웃 블루스		
코리아판타지		

5-6차시

1. 이 책의 제목이 '십시일反' 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2.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남은 말들을 적어 '십시일反 인권 나무'를 완성해 보자.



3. 이 책에 나온 다양한 '차별'의 내용을 적고, 그러한 차별이 온당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보자.

4. 이 책을 읽고, 관심이 가는 차별 네 가지를 정해 세상일과 연결 지어 그림을 그린 다음 간단한 설명을 써 보자.

차별 1

그림

설명

차별 2

그림

설명

차별 3

그림

설명

차별 4

그림

설명

5.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읽고, 그 사례를 찾아 적어 보자.

	차이	차별
의미	• 서로 같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그 자체 •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일 뿐 옳고 그름을 의미하지 않음	• 차이를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 •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가를 때 나타남
사례		

6. 이 책을 읽은 뒤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차별 중 나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사례는 무엇인지 쓰고, 그 이유를 적어 보자.

나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차별의 사례

이유

책 소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深淵)이 있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고 우린 그것을 소통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다른 이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진정 어린 헤아림이 이치를 따지는 힘을, 휩쓸리지 않고 온당함을 판별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동성애자, 장애인, 성, 학력, 빈부, 미혼모, 군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그들이 겪은 온당하지 않은 차별을 보며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 책을 읽고 함께 사는 법,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한 삶의 태도를 깨달은 이들은 전보다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옳은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에, 이 책에 담긴 '불편한' 시선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그 '불편한' 순간은 곧 우리의 인권 감수성이 한 뼘씩 커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차별과 맞닥뜨리며 우리는 점점 더 사람다워지리라 믿는다.

수업 포인트

1. 공감해 보기

공감(共感)의 한자 말을 살펴보면 함께(共), 느낀다(感)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자신도 느끼는 마음이다. 차별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경험은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만화를 그린 지은이의 말을 읽어 보고 자신도 작가가 되어 지은이의 말을 써 보는 활동을 통해 보다 진중한 자세로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세상과 연결하기

이 책의 내용은 만화가의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차별'에 대한 해묵은 과제에 이제라도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만화 내용과 관련된 세상일을 떠올려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마련했다.

3. 시민으로 거듭나기

책을 읽고 나의 머릿속에 남은 것을 떠올려 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인권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정의 내린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해 제목을 만들어 봄으로써 독자들의 시민의식을 깨울 수 있다.

1~3차시

「완전한 만남 외」「그는」「여배우 은혜」

1. 「비정도시」를 비롯한 손문상 작가의 만평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손문상 작가의 만평 중 인상 깊은 작품 3편을 정하고, 새로운 대사를 만들어 넣어 보자.

만평 제목	만평 제목	만평 제목
위 대사를 넣은 이유	위 대사를 넣은 이유	위 대사를 넣은 이유

② 「완전한 만남」을 읽고, 아들과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이날의 일기를 써 보자.

아들의 일기	어머니의 일기

③ 손문상(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손문상의 말]
취재 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 같다.

2. 「그는」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그는」의 등장하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를 세 줄의 소개 글로 표현해 보자.

② 이애림(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이애림의 말]
막연하게 '동성애자'라고 하면 어떤 이는 혐오스럽게 보거나, 또는 다르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동성애자인 '그'의 특별한 것 또는 이상한 점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다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고,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도 않다. 나처럼 어느정도 게으르고, 나처럼 꿈도 있고, 욕도 하고, 가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논다.

3. 「여배우 은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은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은혜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은혜의 변화 과정

◆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② 장차현실(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장차현실의 말]
다운증후군의 장애가 있는 딸 은혜는 집에서는 자신의 일도 엄마를 돕는 일도 척척 해내는 기특한 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견으로 집을 나선 이 소녀는 곧 장애인이 되어버린다.
어느 날 소녀는 자신을 편견 없이 이해해줄 친구를 찾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었다. 16세 소녀의 예쁜 감성은 상처받기 일쑤였고 일상적 소외를 겪는 은혜는 늘 주변인이었다. 그런 은혜가 주인공이 된 것은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4. 「완전한 만남 외」「그는」「여배우 은혜」를 읽고 떠오른 세상일을 써 보자.

「이상한 나라의 홍대리」「새대가리」「해리포터와 호구왔다 마법학교」

「사이 시옷」

1. 「이상한 나라의 홍대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홍대리가 간 '2106년'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①	
②	
③	
④	
⑤	

② 다음은 '말숙씨'의 말이다. 현실로 돌아온 '홍대리'는 '말숙씨'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할지 써 보자.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미래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미약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말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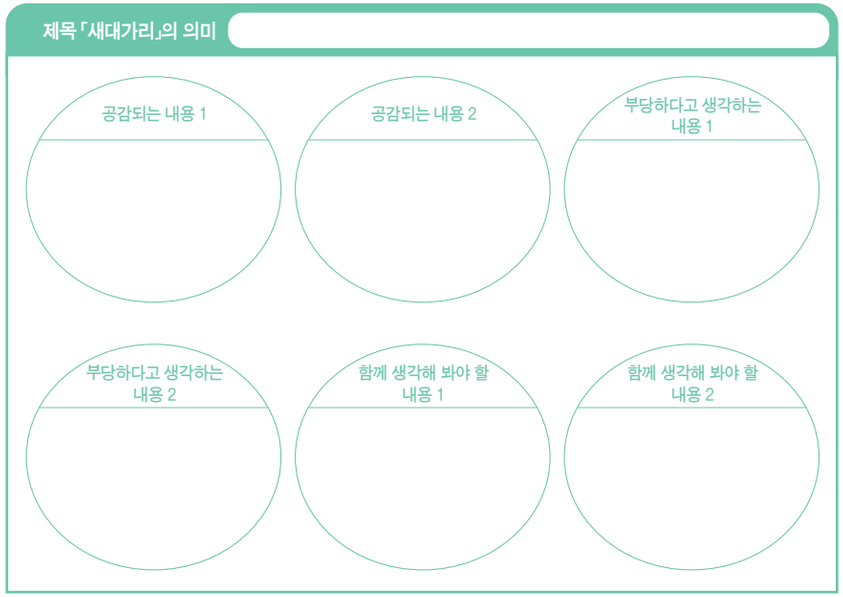
홍대리

③ 홍윤표(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홍윤표의 말]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인권 문제에 애써 모른 척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비겁한 나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되짚어보게 만드는 작업이 솔직히 편안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렸지만 여전히 제 만화는 가볍습니다. 그저 읽는 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 모르는 편견들을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2. 「새대가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각 빈칸마다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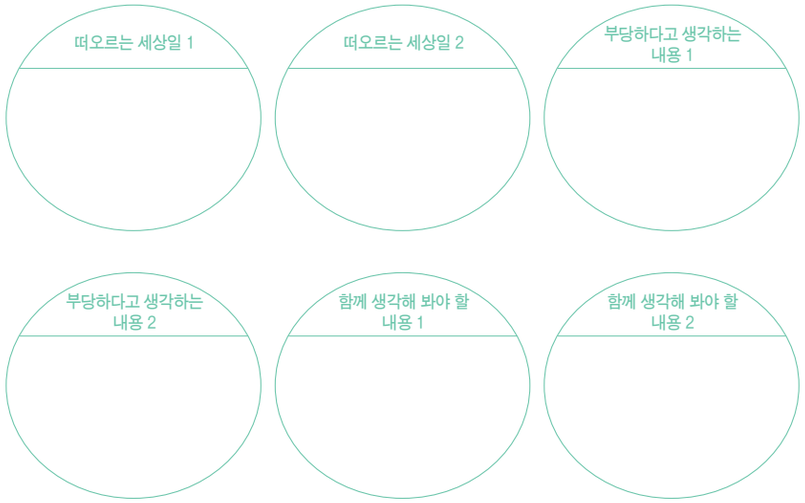
② 오영진(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오영진의 말]
오늘도 묵직한 가방을 둘러메고 학교로, 학원으로, 독서실로 향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이 길만이 있을 뿐이다. 대학.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접는 법을 가르쳐주신 아버지. 꿈의 모범답안은 대학이라는 선생님. 새대가린 아예 관심조차 없는 교육부. 1등만 기억하는 대한민국.
"왜 내 꿈을 꾸는데도 성인 인증이 필요한 거죠!!"

3. 정훈이의 「해리포터와 호구왔다 마법학교」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각 빈칸마다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제목 「해리포터와 호구왔다 마법학교」의 의미



② 정훈이(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정훈이의 말]
입시현장에 내몰리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그렸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수면시간까지 줄여가며 노동을 하도록 시키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현실을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4. 「이상한 나라의 홍대리」 「새대가리」 「해리포터와 호구왔다 마법학교」를 읽고 떠오른 세상일을 써 보자.

1. 「축복」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주인공의 심리가 잘 드러난 장면을 고르고,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

① 장면 설명	② 장면 설명	③ 장면 설명
심리	심리	심리

② 유승하(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유승하의 말]
왜 비혼모 만화를 하려고 생각했냐면, 나부터 비혼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통해 제가 가진 편견도 허물 수 있을 거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내내 제가 배우는 기분으로 취재했고요. 생각보다 편견이 두터웠는지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딸이나 동생이 비혼모가 된다면 어쩌겠냐는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모두들 그런 생각도 질문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많이 배우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심했습니다.

2. 「창」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등장인물 중 세 명을 정해 각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 보자.

인물	해 주고 싶은 말

② 최규석(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② 최규석(지은이)의 말을 참고해 자신이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의 말'을 써 보자.

[최규석의 말]
소수-혹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 쉬움에 대한 유혹이 모든 종류의 억압과 불평등을 낳고 강화한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절대 군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 「축복」 「창」에 있는 만화를 읽고 떠오른 세상일을 적어 보자.

1. 이 책을 읽고 난 후 '차별'에 대해 내 머릿속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2. 우리 사회에 숨은 차별을 찾아내는 '인권 감수성' 질문 목록을 만든다면 어떤 문항을 넣고 싶은지 써 보자.

질문	답변
예시) 학교 시설 중 몸이 불편한 친구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예시) 경사면 없이 계단만 있는 층계
①	
②	
③	
④	

3. 이 책의 제목이 『사이시옷』인 이유는 무엇일지 써 보자.

4.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차별' 중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를 정해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자.

만화 제목	문장 완성하기
	_____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_____ _____ 해야 한다.
	_____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_____ _____ 해야 한다.
	_____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_____ _____ 해야 한다.

5. 4번에서 선택한 만화 속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하며 만화에 새로운 제목을 붙여 보자.

① _____ ⇨ _____

② _____ ⇨ _____

③ _____ ⇨ _____

책 소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관점'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선택한다. 이 관점은 우리의 선택과 꿈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천성 또는 관성을 따른다고 한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익숙했던 것에 질문하는 것이며 다른 선택을 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관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바라게 되기도 하고,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지닐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알면서도 눈감아 왔던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한다.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순간이자,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넓고 깊어지는 순간이다. 새로워진 관점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초판 여는 글」의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세상을 만드는 것은 나의 인권을 찾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존중할 때 가능할 것이다.'라는 제안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이 책을 이정표 삼아 깨어난 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인권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함께 용기 낸 걸음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의 서사와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수업 포인트

1. 인권에 대해 찬찬히 헤아리기

「초판 여는 글」에서 밝힌 '이 책이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찬찬히 읽어보며 인권 의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차별'을 주제로 삼은 이유, '인권'의 탄생과 발전, 인권이 마침표 없는 과정의 연속인 이유, 사람답게 산다는 것, 제목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보고 이를 나눠 보는 과정을 통해 인권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2.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연대해 보기

차별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을 읽어내는 활동을 통해 역지사지, 즉 다른 이의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든 토의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 책을 읽기 전의 자신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으며, 소리 내야 할 때 함께 어깨동무하고 소리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3. 새로운 인권 선언문 만들어 보기

세계인권선언문은 세계 인권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찬찬히 읽으며 의미를 생각해 보고, 기억하고 싶은 조항을 필사해 본 다음 새로운 인권 조항을 만들어 본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다짐해 보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차시별 계획

1차시

1. 이 책의 「초판 여는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차별'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② '인권'과 '이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③ 인권의 종착지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

④ '인권'이 마침표 없는 과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 이 책의 제목이 『어깨동무』인 이유는 무엇일까?

2-5차시

1. 「꿈의 공장」「맞아도 되는 사람」「은별이」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월 일			
① 각 작품을 읽고 새로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 꿈의 공장 ○ 맞아도 되는 사람 ○ 은별이		
② 만화의 주인공이 주로 느꼈을 감정과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꿈의 공장	맞아도 되는 사람	은별이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③ 각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나눌 질문과 생각	○ 질문 ○ 생각 정리		
④ 각 작품과 관련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꿈의 공장	맞아도 되는 사람	은별이

2. 「사랑이란 이름의 추억 박탈」「교문 안 이야기」「그 아이」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월 일			
① 각 작품을 읽고 새로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 사랑이란 이름의 추억 박탈 ○ 교문 안 이야기 ○ 그 아이		
② 만화의 주인공이 주로 느꼈을 감정과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사랑이란 이름의 추억 박탈	교문 안 이야기	그 아이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③ 각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나눌 질문과 생각	○ 질문 ○ 생각 정리		
④ 각 작품과 관련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사랑이란 이름의 추억 박탈	교문 안 이야기	그 아이

3. 「세대유감」「늙은 개가 짖는 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월 일		
① 각 작품을 읽고 새로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 세대유감 ○ 늙은 개가 짖는 밤	
② 만화의 주인공이 주로 느꼈을 감정과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세대유감	늙은 개가 짖는 밤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주인공이 느꼈을 주된 감정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
③ 각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나눌 질문과 생각	○ 질문 ○ 생각 정리	
④ 각 작품과 관련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세대유감	늙은 개가 짖는 밤

4. 「人權 Begins」「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월 일	
① 「人權 Begins」를 읽고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② 「人權 Begins」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	「人權 Begins」의 주인공 → 이유 →
③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을 읽고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④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내용 중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⑤ 각 작품과 관련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6-7차시

1. 각 만화들에 대한 나만의 한 줄 평을 써 보자.

- 꿈의 공장 →
- 맞아도 되는 사람 →
- 은별이 →
- 사랑이란 이름의 추억 박탈 →
- 교문 안 이야기 →
- 그 아이 →
- 세대유감 →
- 늙은 개가 짖는 밤 →
- 人權 Begins →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2.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QR을 찍어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한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자.

②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적어 보자.

③ 세계인권선언문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조항 선택해 필사해 보자.

3.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의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보자.

제31조

제32조

독서 수업 구성안 ③

나는 얼마짜리 입니까

6411의 목소리 지음
노회찬재단 기획

책 소개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는 웹툰 작가, 물류센터 직원, 도축 검사원, 번역가, 대리운전 기사, 사회복지사, 예능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지닌 이들이 직접 쓴 자기 일터 이야기다. 진솔하게 써내려 간 문장들이 잔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는 동시에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직업 수기이므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각각의 사연 속 속상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아 본 뒤 이들의 억울한 처지가 정당한지를 한 발 떨어져 따져 묻는 사회적 교양 수업 교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발견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상에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많음을 깨달으며 공동체 감수성을 일깨운다. 늘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 묻는 책.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를 진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

수업 포인트

1. 우리 사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우리는 택배 노동자의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고, 청소 노동자가 쓸어 놓은 길을 걸어, 운송 노동자가 실어 나르는 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급식 노동자가 만들어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정작 실제 그 일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 책의 저자들이다. 이들이 꾹꾹 써 내려간 진심과 이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봄으로써 독자들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독자들은 한층 넓은 견문이 생긴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과는 다른 관점도 생겨나는데, 바로 세상이라는 운동장이 다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활동에 제시한 '다양한 노동 형태 이해하기'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책을 읽기 전 배경지식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깊이 읽기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는 제목부터 곱씹어 볼 만하다. 청소년의 진로가 획일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많은 수입, 즉 돈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사람의 가치 또한 물질로 매겨지는 현실은 과연 타당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에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깊이 읽는 단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서일지를 써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비교해 감으로써 언젠가 '일하는 사람'이 될 독자들 저마다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수많은 행위 주체들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경계를 튼튼히 하는 데 보탬이 된다.

3. 비경쟁 토론 및 상황극으로 나와 다른 생각 만나기

이 책에는 일흔다섯 가지 직업 및 일터와 그에 따른 각각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사회의 불합리함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한 쪽에서 생각하기만 어려운 지점도 있으며 관점에 따라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수업 참여자들은 토론 및 상황극을 통해 안목을 확장할 수 있다.

4. 수업의 흐름

차시	활동		무엇인가?
1~2차시	생각 열기	- 다양한 노동 형태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3~6차시	독서활동	- 독서 일지 쓰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7~8차시	독후활동1	-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기 - '6411번 버스'에 사람 태우기 - 친구들과 생각 비교해 보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9~10차시	독후활동2	- 상황극 만들기 - 내가 하고 싶은 일 상상해 보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짝 활동

차시별 계획

생각 열기 [1차시~2차시]

활동1. 다양한 노동 형태 이해하기

-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을까?' 오늘 내가 만난 '일하는 사람' 모두 써 보기.
- 그 직업에 대한 인상을 써 보기.
- 이 활동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해 보며,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

오늘 만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직업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요? (책을 읽기 전)	그 직업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요? (책을 읽고 나서)

활동2.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아래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 '전태일' 강의 영상	1) 이 영상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드라마 '송곳' 소개 영상	2) 생활하면서 겪은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일하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 열기 [3차시~6차시]

활동1. 독서일지 쓰기

• 각 부를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해 보자.

- 각 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 세 가지를 고른 다음 그 이유를 적고,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을 써 보자.

- 개별로 작성한 활동지를 모둠과 공유하며 생각을 나눠 보자.

-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 다음 발표해 보자.

[읽은 날] 월 일	1부	숨은 일터에서 '나'를 발견하다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은 ---------- 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은 ---------- 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은 ---------- 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읽는 동안 떠오른 질문 세 가지	① ② ③	
공통질문	1부의 제목이 **숨은 일터에서 '나'를 발견하다**인 이유는 무엇일까	

[읽은 날] 월 일	2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읽는 동안 떠오른 질문 세 가지	① ② ③	
공통질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읽은 날] 월 일	3부	‘오늘도 무사히’, 한숨과 땀방울의 연대기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읽는 동안 떠오른 질문 세 가지	① ② ③	
공통질문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읽은 날] 월 일	4부	권리를 향해 한걸음씩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글은 ------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읽는 동안 떠오른 질문 세 가지	① ② ③	
공통질문	일터에서 보장받아야 할 최고의 **권리**는 무엇일까	

독후 활동 1 [7차시~8차시]

활동1.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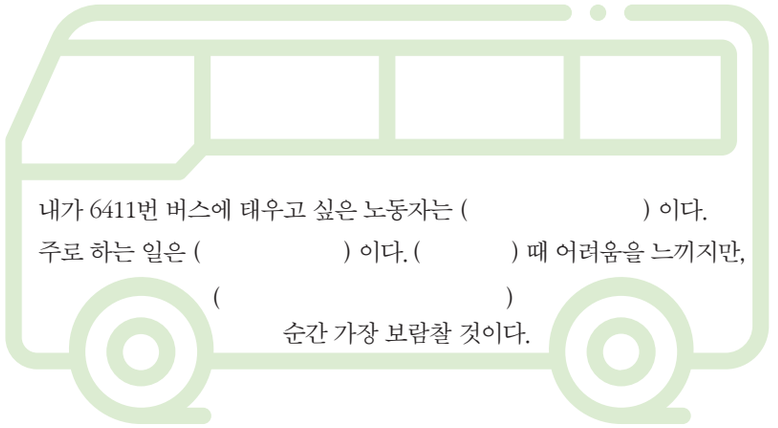
•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책을 읽은 다음 정리하는 활동이다.
- 개별로 작성한 활동지를 모둠과 공유하며 생각을 나눠 본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기
① 책 제목 '나는 얼마짜리입니까'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②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③ 이 책 중 가장 공감이 안 되었던 글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④ 책을 읽고 난 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⑤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가?

활동2. 6411번 버스에 사람 태우기

-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너머를 상상해 보기.
-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소개해 보자.



내가 6411번 버스에 태우고 싶은 노동자는 ( ) 이다.
주로 하는 일은 ( ) 이다. ( ) 때 어려움을 느끼지만,
( )
순간 가장 보람찰 것이다.

독후 활동 2 [9차시~10차시]

활동1. 상황극 만들기

- 이 책에 소개된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짝과 함께 상황극을 만들어 본다.

- 검사/변호사, 회사 측/노조 측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 본다.

- 활동지를 만들어 모둠끼리 비교해 본다.

우리가 선택한 에피소드는 ( )입니다.	
저 ( )는, ( )의 역할이 되어 ① ② ③ 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저 ( )는, ( )의 역할이 되어 ① ② ③ 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활동 후 느낀점	활동 후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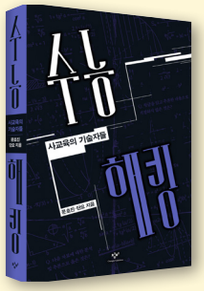
활동2. 내가 하고 싶은 일 상상해 보기

•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둠 친구들과 나누어 보자.

- 각자의 장래희망을 경청한 다음 받아 적는다.
- 각자의 장래희망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래에 쓴다.
-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는지 직업이 아닌 방식으로 써 본다.

예시1) 나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시2) 나는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창비의 책



수능 해킹
사교육의 기술자들

문호진, 단요 지음

현직 의사이자 활동가 문호진과 소설가 단요가 사교육 현장에서 보고 겪은 생생한 경험과 취재를 바탕으로 지금의 수능이 얼마나 기괴하고 심각하게 변질된 시험인지 따져 묻는다. 학생, 교사, 전현직 사교육 종사자들의 방대한 인터뷰와 자료가 인상 깊은 이 책은 소위 '입시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끈질기게 '해킹'한다.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둘만 모여도 의견이 갈리는
현대사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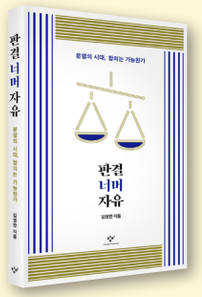
박태균 지음

신화로 덧씌워진 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롭게 읽기 위해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입을 열었다. 한국현대사에서 꼭 짚어야 할 10가지 이슈와 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적 정황을 쉽고 상세하게 해설하는 이 책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국면과 사건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사회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한국사회가 무차별 강력범죄로 일상을 위협받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강력범죄 문제와 현행 형사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제도 변화를 제안한다. 법조인으로서의 경험담과 전문성이 결합된 이 책은 판사, 군검사, 법학박사, 법무심의관 등을 거치며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서보았던 정재민만이 저술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범죄 해설서다.



판결 너머 자유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김영란 지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영란은 그 실마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